

보도시점 2026.3.29.(일) 낮12시 배포 2026.3.27.(금)

디자인 등록부터 소멸까지 한눈에, 특허와 논문도 함께 본다

- 지식재산 자료 178만 건 개방...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30.(월)부터 디자인 권리 변화 과정과 특허에 인용된 논문 정보를 담은 지식재산 자료 178만 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방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지식재산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이 등록됐는지 여부 등 결과 중심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방되는 자료는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 심사, 등록, 유지, 소멸에 이르기까지 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ST.87)을 적용해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자료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은 국내·외 디자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간 통합 분석, 시장 흐름 파악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도 훨씬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논문 정보를 연결한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특허 문서 안에 논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직접 논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자료 개방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논문의 제목, 저자, 발표연도, 학술지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기술의 배경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자 분석, 유망 연구 분야 발굴, 연구 개발 전략 수립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되는 자료는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제공되며, 대용량 파일(Bulk) 또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외 17개국 120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개방 장으로, 지식재산 자료를 대용량 파일(Bulk) 및 실시간 데이터 호출방식(Open API) 형태로 제공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자료 개방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시장의 기술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고품질 자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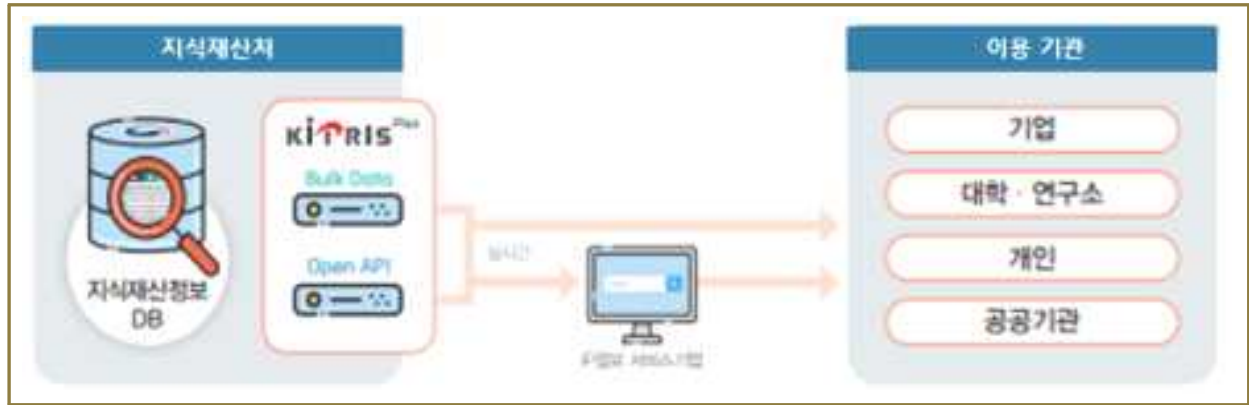
※ 붙임 : 지식재산정보활용서비스 개요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현철 (042-481-5134)
		담당자	사무관	최진아 (042-481-5359)
			주무관	김성준 (042-481-5137)



□ 서비스 소개

- 지식재산처가 개방 중인 모든 IP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①벌크 데이터, ②Open API 방식의 정보개방 서비스



□ 데이터 제공 형태

- (벌크데이터) 지식재산 정보를 대용량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
- (Open API) 지식재산 정보를 자체 DB 구축 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방식

□ 데이터 개방 실적

2024년	2025년	2026년
▶ 표준화 특허공보 ▶ 국내·외 권리자변동정보 3종 ▶ 중국특허 한글번역문 ▶ CPC-KPC 분류코드 ▶ 법적 상태 이력(ST.27) (특허·실용신안)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종 ▶ 일본특허 한글번역문	▶ 법적 상태 이력(ST.87) (디자인) ▶ 특허-논문 인용 정보

□ 활용 분야

구분	활용 기관	활용 목적
IP관리	특허법인, IP 관리기업, R&D 연구소	IP 고객관리 및 성과 관리에 활용
IP금융	은행, 신용보증기관, 금융 공사	기술 담보의 여신 및 금융심사에 활용
IP평가	기술 평가 전문기관, 평가 연구기관	(유망) 기술 평가 측정에 활용
IP거래	IP 거래 전문기관, 대학	권리 거래를 위한 중개에 활용
IP서비스	IP 번역기업, IP 정보서비스기업	번역 엔진 성능 향상에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에 활용